



전남도는 최근 동부지역본부 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전남도,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팔 걷었다’

도농복합 상생협의회 출범…인구감소지역 범위 등 논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농 형평성 높이는 역할 할 예정

전남도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동부지역본부 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 논

의를 시작했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된 형태의 시다.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 4개 시가 해당된다.
그동안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심 정책에 따라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생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4개 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로 세 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표 개발·활용 방안 등에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또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활용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지표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낙후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가점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 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읍면 지역에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위원들은 도의회와 시의회,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도농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을 함께 담아주길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협의회에서 다루지는 안건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ACC재단·광주 동구, 미래 문화예술 인력 함께 키운다

5년간 ‘꿈의 극단’ 운영…어린이·청소년 연극 교육 “장기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자리매김 적극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지역 기반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ACC재단이 진행하는 ‘꿈의 극단 광주 동구’ 사업을 지역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린이·청소년 극단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ACC재단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예술단’ 사업에 ‘꿈의 극단’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신규거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교육 기반을 활용해 광주 동구의 지역 자원과 이야기를 창작 콘텐츠로 제작하는 참여형 연극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단원들은 연기뿐 아니라 무대·조명·음향 등 공연예술 전 과정을 경험하며,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꿈의 극단 광주 동구’ 사업의 공동 추진 및 운영 협력, 공연·교육 기반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환경 조성, 지역 참여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ACC재단은 전문 공연시설과 창작·제작 기반을 활용한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광주 동구는 지역 내 학교·청소년 시설·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 기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광주 동구는 최근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지역 기반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중심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꿈의 극단 광주 동구가 지역을 대표하

는 장기적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도담그룹홈과 혜성그룹홈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방과 후 및 학습 지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룹홈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필수적 검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검진 항목은 신체 발달 측정과 함께 혈액·소변 검사, 흉부 X-ray 촬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동강대서 몽골 공무원·교사 ‘1박2일’ 투어

교사 40여명 등 공무원 방문 유학생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 선도 대학’으로 발돋움한다.
동강대 국제교류원·한국어학당·RISE 사업단은 지난 20~21일 몽골시청과 몽골 시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해 몽골 Reform 협회 소속 교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맞이했다.
Reform 협회는 한국에서 유학 장학생으로 학위를 딴 뒤 몽골 학교에서 근무하는 몽골교육청 소속 교사 모임이다.
동강대는 Reform 협회와 ‘글로벌 학습 진학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몽골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몽골 방문단은 도서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동강대 홍보 영상과 학교 소개 설명을 들은 뒤 캠퍼스 투어에 나섰다.
영상, 음식, 미용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학과,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K-뷰티아트과, 글로벌비즈니스과를 비롯해 원격지원센터의 영상·편집 시설 등을 체험했다.
또 2026학년도 외국인 전담과로 신설되는 AI미래자동차과 관련 인프라도 관심 있게 둘러봤다. 이밖에 동강박물관을 관람하고, 생활관에서 숙박하며 학생들의 편의시설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Reform 협회의 아리우나야 비타르(ARIUNABAATAR) 회장은 “동강대 시설이 훌륭하고 몽골 학생들이 관심 가질만한 학과도 많아 기대감이 크다. 또 학교 박물관은 처음이라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지난 20일 동강대를 방문한 몽골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차 한잔으로 ‘안전·소통’ 나눔 눈길

‘안전 한잔, 여유 한잔’ 캠페인 광주·곡성·평택공장장 진행 경영진 직접 참여…커피 건넨

금호타이어가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노사 간 소통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9일까지 광주공장을 비롯한 곡성, 평택 등 한국공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한 잔, 여유 한 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고,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음료 배포를 넘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임원과 팀·파트장들은 커피차에서 직접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금호타이어가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노사 간 소통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운영되는 커피차에는 안전 캠페인 현수막이 게시되며, 제공되는 음료 컵에는 시각적인 안전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주간조와 야간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세분화해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

를 확산하고, 직급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